"아이들 고민·걱정 풀어줘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연기되며 학교마다 학생상담 차질
대면 상담 어렵자 전화·메시지로 불안감 해소 주력

서귀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는 개학 전인데도 분주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며 학교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새 학기 학생 상담활동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이 시기에 커질 수 있는 아이들의 불안을 보듬기 위해서다.

이 교사는 "고3 수험생은 학업 불안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며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고 학생마다 담임교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전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하며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또 다른 상담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새 학기 불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이맘때쯤 아이들이 겪는 새로운 학교와 학년, 친구에 대한 긴장이 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긴장과 불안이 크다"며 "가정에서도 '어떤 게 걱정돼?'와 같은 말을 건네고 아이가 풀어놓는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해결책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개학 연기로 학생들의 심리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상담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현재까지 상담이 의뢰됐던 학생 102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학 이후 학교에서의 특별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박재희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장학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한 달 이상 제한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며 "학교에서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개학 한 뒤 심리적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30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는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에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진다. 김선영 도교육청 의학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학생 정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양배추 수확중인 들녘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배추 수확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4·3 희생자"

정부, 부친 희생 장면 목격자 희생자로 첫 인정

지난 27일 중앙위서 결정
7696명 희생자·유족 인정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가 '4·3희생자'로 인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에서 심사한 8059명 가운데 7696명(희생자 90명·유족 7606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다. 불인정된 363명(희생자 22명·유족 341명)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을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는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 등이다. 또 이중 32명은(후유장애자 31명·수형자 1명)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송모씨는 4·3 당시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은 경우로, 정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3희생자로 인정한 최초 사례다. 아울러 후유장애자 31명 중 총상 및 창상 피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이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심사를 통해 총 2만1696명(희생자 321명·유족 2만1375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4·3희생자 및 유족은 9만4983명으로 늘어났다.

현학수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초중고 개학 3월 2일→9일→23일→4월 6일→?

정상개학 불투명… '온라인 개학' 가능성 ⬆

정부, 이번주초 최종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개학 여부를 놓고 또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정부는 이번 주 초쯤 개학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를 열고 4월 6일 개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2일 개학을 같은 달 9일, 23일로 바꿨다가 4월 6일로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개학 이후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하자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서 대다수 교육감은 다음달 6일 '등교 개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추가 개학 연기 필요성 외에 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는 이달 30~31일 중에 개학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모든 지역에서 정상 개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짙어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참고해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벚꽃 만발… 작년 보다 이틀 빨라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7일 제주 벚꽃이 만발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벚꽃 만발은 제주지방기상청 내 관측 표준목에 80%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말한다.

지난 24일 표준목 벚꽃이 개화(한 가지에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핌)했으며, 사흘 만인 이날 만개했다.

올해 제주 벚꽃 만발은 지난해보다 이틀 빨랐다. 벚꽃 만발은 3월 기온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3℃ 높았고 3월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46.3시간 길어 만발하는 시기가 다소 빨라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왕벚꽃축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소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안전에 집중"

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비
유족·관계자 150여명만 참석
발열검사·응급이송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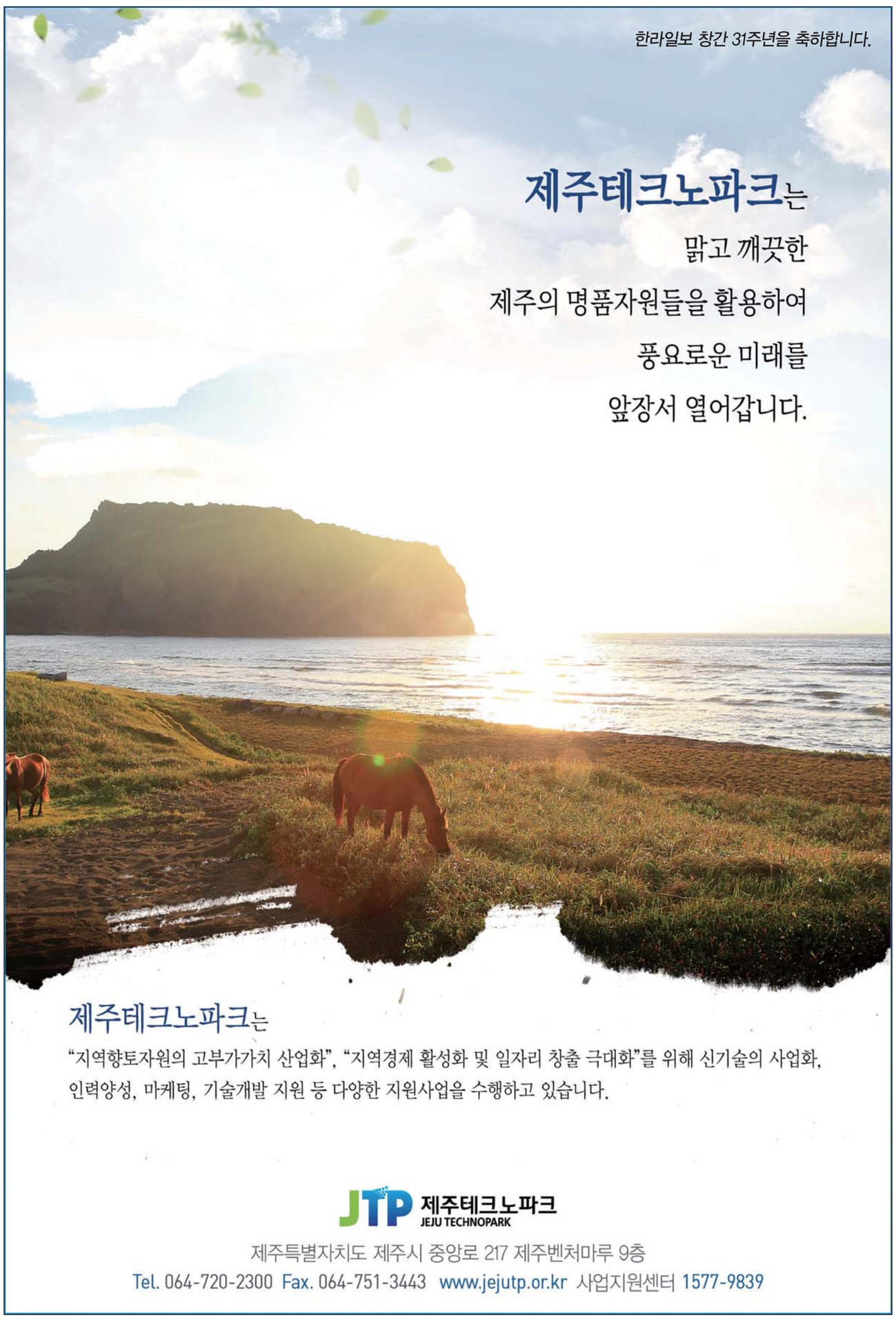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 72주기 추념식을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50여명의 유족 및 관계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치러지는 추념식의 안전한 봉행을 위해 주 행사장은 물론 도민 및 유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4·3평화공원 모든 공간에 방역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진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방역담당관(제주시 건강증진과장)'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방역담당관은 평화공원 방역(4월2~3일), 행사요원 교육(4월 2일) 및 추념식 당일에는 현장진료소 운영을 담당한다. 방역대책반은 행사장인 추념광장은 물론 화장실 등 출입 왕래가 가능한 평화공원 곳곳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행사장 뿐만 아니라 도민과 유족들이 방문하는 위패봉안실, 봉안관, 행방불명인 표석 등 출입구에도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과 평화공원내 출입이 가능한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추모객들을 위한 마스크도 준비키로 했다.

특히 평화공원 입구인 초대광장에 설치되는 현장진료소에서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추모객에 대해 1차적으로 발열체크를 해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진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명씩 배치하고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오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코로나 선별진료소)으로 이송 할 수 있도록 구급차(2대)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4·3유족회도 자체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고대로기자